

청정자연과 키토산이 (주)키토랑을 탄생시켰다

(주) 키토랑
이 키토산
닭고기로 새롭게 태어난
다.

대구지역 최대의 특급 도계장인 (주)키토랑(대표 조명래)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됐다.

2년전인 지난 99년 조명래 사장과 이동환 대표가 40억원의 자본금으로 건우식품(주)를 공동 인수, 건설한 성장을 지속해 왔던 이 도계장은 최근 회사명을 (주)키토랑으로 전환한데 이어 사업영역을 도계, 유통에서 계약생산, 체인사업분야로까지 확대를 꾀하고 있다.

50여농가와 사육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육계를 조달하고 있는데다 이미 대구를 비롯해 마산, 창원, 상주 등 경상남북도 전역에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키토랑은 키토산을 이용한 육계사육이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면서 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키토산 사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산하는 닭고기 품질에 대해 자신감을 확보했습니다. 초기 병아리 입추시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아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제재 이외에

는 미생물 제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이 없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키토산 사료를 이용한 뒤로 육질이 담백해지고 영양성까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양축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해하는 닭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토산 닭고기를 생산해 내면서 주문량도 크게 늘어 일일 4만수 정도를 작업할 수 있는 도계장이 될 틈이 없다는 조명래 사장은 (주) 키토랑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구 등 경상도 지역은 지역적으로 육계사육에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청정지

역으로 타 시도에 비해 육계 사육에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닭고기 소비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반해 생산은 적은 편입니다.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닭고기 산업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명래 사장은 20여년 이상 육계를 사육해온 육계인이다. 도계장을 인수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닭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부문이 해결돼야 육계사육업자들이 정상적으로 닭 사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명래 사장의 육계 그리고 계육산업에 대한 최종 목적지는 (주)키토랑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닭고

기 전문회사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 닭고기 체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나가고 있다는 조사장은 키토랑 치킨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주)키토랑은 육계사육 측면에서의 안정성 확보외에 닭고기 생산과정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7월이후 모든 도계장에 적용되는 HACCP지정 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 오는 9월부터 HACCP 지정을 위해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



↑ (주)키토랑
조명래 대표이사

➔ (주)키토랑을 냉장
탑차 8대를 비롯 성계
운반차량(어리장차)
등 총 20여대의 닭 수
송차량을 보유하고 있
다.

